

혁신과 변화로 '2030 고흥인구 10만' 꿈꾼다

자치CEO

공영민
고흥군수



'2022년 12월 21일'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산업 특화지구'로 확정된 날이다. 고흥군 역사에 최대 경사였다. 발사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고흥군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최첨단 우주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 생각만해도 가슴이 벅차다. 특화지구 지정과 이로 파생되는 연계사업은 10년 후 '인구 10만' 이상의 용군으로 성장할 든든한 축매 역할로도 기대된다.

사실 고흥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내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청년인구 유출도 심각하다. 한반도 끝자락에 있는 고흥군의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비장의 카드가 바로 우주·항공산업이다. 민선 8기 고흥군의 비전은 '2030년 고흥인구 10만 달성'이다. 민선 8기 고흥군은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오직 고흥'만이 가능한 3대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중심에 고흥군이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함께 고흥군은 2022년 12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특화지구'로 확정되어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정부가 2031년까지 국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게 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산업단지 46만 평 조

성, 민간발사장, 연소시험장,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우주사이언스컴플렉스 조성 등이다.

지난해 8월에는 민간발사장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등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핵심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돼 정부가 올해부터 2400억 원을 우리 고흥에 연차적으로 투자한다.

지난 6월 28일에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예타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돼 3800억 원이 투자되는 46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 조성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사업들의 예타면제가 확정됨으로써 정부의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고흥군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확실하게 발돋움했다.

고흥군은 타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넓은 드론공역을 보유하고 고흥드론센터, 드론산업화 실증 지원센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등 드론·UAM 산업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다.

고흥만 일원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46개 대기업이 12개 컨소시엄을 구성, 미래 新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1단계 개발지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도심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흥군에서는 1단계 실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드론택시를 관광 상품화할 계획으로 대한항공 등과 항로개설용역을 착수했다. 드론택시가 관광 상품화되면 고흥군이 남해안 관광의 거점이 되고 관광산업의 판도

가 달라질 것이다.

이 밖에도 고흥만 일원에 드론 제조업체들이 입주할 4만 평 규모의 무인항공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를 착공해 드론 분야 관련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드론 부품을 국산화하는 지원센터도 추가 구축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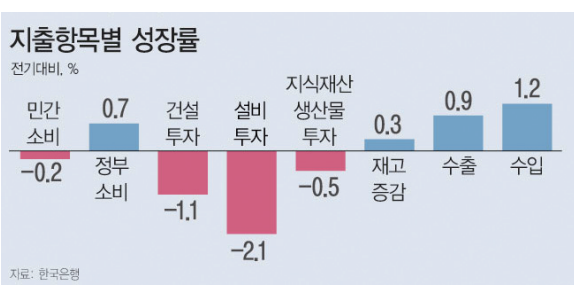
아울러 전남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녹동항 상설 드론 쇼'는 전국 각지 관광객 18만 여 명이 관람해 15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녹동항에서 700대 규모의 상설 드론 쇼가 펼쳐져, 드론중심도시 고흥을 알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고흥군의 획기적인 변화·발전, 그리고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와 국가산업의 성공적 조성, 입주 기업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광주~고흥간 고속도로 관련 용역과 함께 군에서도 경전선 별곡역에서 지선을 연결해 고속전철 고흥역과 녹동역을 건설하는 철도인프라 구축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수립되는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 간 33.4km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국가산업단 연계 도로의 예타면제 또한 추진 중으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망 구축의 접근성 개선은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조기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이커머스 기업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가 입점 판매자에 수천억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논란이다. 대형 유통기업을 비롯한 여행사들과 중소 업체들까지 앓다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으며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는 상품 취소와 환불 지연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구매를 주의해야 하는 큐텐 계열사는 티몬, 위메프, AK몰, 위시플러스, 인티파크(쇼핑 부문) 등이 꼽힌다. 일각에서는 '위메프 전직원 퇴사설', '큐텐 부도설' 등이 거론되며 큐텐 측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등장했다. 자신을 집배원이라고 속인 사기범들이 카드 배송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피해자가 카드를 신성한 적 없다고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며 가짜 카드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어 가짜 카드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원격조종 앱을 설치할 권유하고, 가짜 금융감독원과 검찰청으로 통화를 이어가게 해 돈을 가로챘다. 해당 방법으로 무려 7억 원을 갈취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경찰은 "신성한 적 없는 카드 관련 전화가 오면 끊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나 112에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024 파리올림픽 기간 다채롭고 역동적인 한국 도자 예술이 거리에서 펼쳐진다. 한국도자재단은 파리 7구에 위치한 메종 드 라 슈미에서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환경, 공동체, 평화 등 3가지 주제로 도예작품을 전시한다. 파리올림픽 문화올림픽 아드 행사에 채택·추진된 이번 행사는 한국 선수단을 응원·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작품은 고무정 작가의 '나의 기도, 너를 위한 기도', 맹옥재 작가의 '비밀의 숲', 심다는 작가의 '인간의 암석', 윤호준 작가의 '도탈출 칠보 투각 향로', 홍근영 작가의 '동반자' 등이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김영란법은 올해로 8년 차를 맞았지만, 식사비 3만원, 선물·경조사비 5만원으로 고정돼 물가상승을 등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사비 상향에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반기는 반면, 일각에서는 합법적 접대를 더 늘리는 꼴로 취지에 어긋난 행태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식사비 한도 조정은 최대 40일간의 의견 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 이르면 추석 전에 시행될 전망이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